

지질학으로 본 음택풍수

Geological Study of Grave Fengsui



글 / 金 容 鶴

(Kim, Yong Hak)
응용지질기술사,
세경지질 기술사사무소 대표.
E-mail: fengsui@hanmail.net

The grave Fengsui is a systematic life science, explained by the life energy of Yin-yang and its five elements. The life energy of Yin-yang and its five elements, though invisible and thus difficult to apply, is easily conceived of as the magnetic force. When the life energy of the grave Fengsui is not understood as ambiguous moving force but as magnetic force, it is possible to open up a new field of Fengsui life culture.

1. 우연한 만남

나침반을 사용하며 땅을 조사한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주로 광맥과 건물지반 조사를 하던 중 우연하게 개인의 가묘자리를 지질 조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풍수라는 학문을 접하게 되었다. 현대교육을 받은 이는 누구나 풍수는 미신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며 나 자신도 미신이라는 선입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들이 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허황한 이야기로 관심이 없었다.

풍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나침반(나경)을 지질인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차이는 무엇일까”라는 호기심이 결국 풍수이론에 빠져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고, 이론적 학문이라기 보다 실생활에 적용한 음양오행으로 체계화된 기술적 학문이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 기(氣)와 이(理)의 성질을 방위(方位) 개념으로 풀이한 기술이므로, 오랜 세월동안 서양학문에 동화된 현대인

에게는 왜곡되게 인식되어 낯설게 느껴진다. 그리고 문명환경이 아닌 자연환경에서 선조들의 본능적이고 감각적 능력으로 개발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한 교감 능력이 퇴보된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힘들지만, 어엿한 동양의 기술로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할 학문이다. 풍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나경은 나침반의 일종이며, 패철, 윤도 혹은 뜬쇠 등으로도 불려지고 있다. 이런 나침반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磁氣)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에는 고지자기학에서 밝혀졌듯이 자기를 함유하고 있고, 우주는 자기의 일변화나 영년변화에 의하여 자기의 세기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에 따른 자기의 변화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학문이 풍수이다.

풍수는 죽은 자의 무덤을 선정하는 음택풍수와 산 자의 가택을 선정하는 양택풍수로 대별하고 있으며 우리네 풍수는 음택풍수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 음택풍수에서 어떤 인물을, 언제, 어느 곳, 어떤 방위에 묻혀 있는가에 따라서 “이(理)

와 기(氣)”의 힘이 다르게 작용한다. 즉 주변환경에 따라 자기(磁氣)의 영향이 인간에게 다르게 전달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지구는 물론 인간도 자성을 함유하고 있다. 인간이 죽으면 육체의 활동은 정지되나 인간의 몸에서 생전에 축적된 잔류자기는 일정기간 동안 잔재되어 있다.

마치 녹화가 가능한 비디오 테이프와 같이 일상생활이 인간의 몸속 자기테이프에 녹화되어 있다. 이 잔류자기가 후손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밝히는 학문이 음택풍수의 기본개념이다. 땅과 인간을 결부시켜 이(理)와 기(氣)의 작용을 연구하여 만든 학문이 “풍수”라면, 기의 작용을 인간에 적용시켜 만든 학문이 “한의학”이다. 최근, 한의학에서도 처방전만 배워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에서 근원적 원리를 추구하려는 학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심지어 이론적인 동양철학에 심취되었다가 그 이론에서 벗어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의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동양철학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우주인 인간을 대상으로 한 기의 학문인 한의학보다는, 대우주인 자연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기(理氣)의 학문인 풍수를 연구하는 것이 동양사상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풍수가 우리 선조들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어려운 고어나 생활풍습으로 구전되어 내려왔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국문학자들이 한자로 된 고어를 해석하면서 현대풍수가 시작되었고, 다음에는 지리학자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고 가꾸어졌으나, 대부분의 국문학자들은 실무적인 현장경험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단지 구문 해석에만 치중하였고, 지리학자들 역시 겉으로 보이는 지상현상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땅의 기(氣)와 음택풍수의 꽃이라고 불리는 혈(穴), 즉 땅속의 현상은 소홀히 다루어왔다. 한편 지질학자는 땅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현상을 밝혀 과거 지구의 변천과정을 해석해왔다. 따라서, 땅속의 암석, 흙, 물에 대한 현상을 지질학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종합하여 자기(磁氣)로 풀이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음택풍수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간 땅을 조사하며 습득한 땅 속의 실무적 지식과 체험들을 종합하여 이것을 기존 풍수지리에 응용하고자 시도하였다. 당초 음택풍수와 지질학의 만남으로 미신으로만 여겨지던 상당 부분이 밝혀지리라 믿었으나, 그와는 달리 상반되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즉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는 상당부분 진전이 있었으나, 풍수사상의 근본인 “기(氣)와 이(理)”의 세계에 접하면서 서구의 과학으로 풍수를 이해하는데는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기는 무형(서양 : 미립자, 파장, 전기, 자기 / 동양 : 생체에너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풍수에서 일컫는 기(氣)는 자기(磁氣)이다. 자기는 직접 볼 수 있는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운동과 작용으로 변화된 자성에 따라 외형이 다양하게 형성된 것이라 믿고, 이러한 외형을 음양오행으로 분류하여 해석하고 있다. 풍수에서 말하는 형상론, 형국론은 내부에 있는 자기성분이 외부에 표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반면에 이기론은 동서남북으로 지정된 방위에서 나오는 자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인간을 파악하는데도 표정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기에 의하여 외부로 드러난 현상이 표정이고, 내부에 있는 기의 실체가 기분이다. 내면에 있는 기분을 이해하여야 인간을 알 수 있듯이, 땅의 표면만 아니라 땅속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음택풍수를 해석할 수 있다. 풍수는 외형을 술수적으로 해석하고, 그 속에 내재된 동양과학의 갖대인 음기와 양기, 오행의 기운, 정기와 편기, 인간의 이(理)와 기(氣)를 자기로서 해석하여야 이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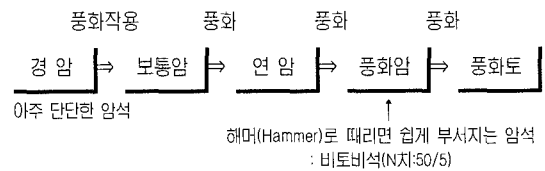
2. 풍수용어 중 “비토비석(非土非石)”은 어떤 흙일까?

음택풍수에서 명당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물론 형상론에서 풍수의 요소인 용(龍), 혈(穴), 사(砂), 수(水) 네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혈이다. 혈은 시신이 안치되는 장소로, 그 장소에 있는 흙의 밀도, 구성성분, 조직, 색상 및 좌향(坐向)에 따라 길흉의 상반되는 영향을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길지의 위치는 낙맥이 되기 바로 전의 장소이다. 이 곳을 혈장이라 하며 혈장의 중심부가 혈이다. 낙맥이 된 아래는 수(水)의 기운인 양기가 있으며, 낙맥 전까지는 산(龍脈)의 기운인 음기가 있으므로, 음기가 내려와 양기를 만나 중화를 이루는 땅이 혈장이다. 이 곳은 산과 물이 만나 음양이 교차되어 자기공명을 이루어 생기(生氣)가 발생하는 곳이다.

음양이 만나 생기가 발생하는 혈장의 흙 중, 흙이 찰지고 색상이 고운 비토비석으로 이루어져야 명당이라고 하며, 넓이는 묘지 한기쯤 조성할 수 있는 크기로 형성되어 있다고 기존 풍수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비토비석이란 암석도 아니고 흙도 아닌 그 중간 흙의 양상이다. 지질학 용어로 설명하면, ‘풍화암(Weathered Rock)’이다. 풍화암이란 암석의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육안적으로 외형이 암석과 같아 보이나, 해머(Hammer)로 치거나 발로 찼을 때 쉽게 부서지는 흙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는 암석의 형상이나 내부조직은 흙으로 구성되어 있다. 암석은 대부분 단단한 구성입자와 그 입자를 고화시키는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풍화를 받을 때는 그 조직이 먼저 흐트러진다. 암석이 오랫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어 기계적 및 화학적 풍화작용(風化作用)으로 작게 부서지면서 물리적 성질이 변하여 새로

운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풍화작용(Weathering)이라고 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물질을 풍화암(Weathered Rock)이라고 한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썩은 바위 또는 석비레라고 한다.

이 풍화암의 생성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산 사면에서는 연암 상부에 분포되어 있고, 풍화암 상부에는 밀도가 약한 풍화잔류토가 잔재하고 있다. 같은 풍화암이라도 묘지에 적합한 흙은 표준관입시험(Standard Penetration Test)결과, 시험의 N치 값이 50/5 정도가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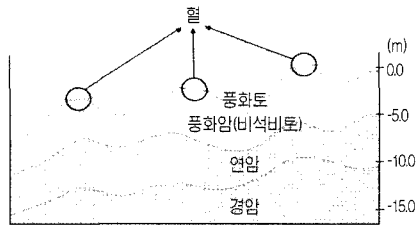


〈그림 2-1〉 암석의 풍화과정

그러나 표준관입시험은 중량이 큰 시추기로 시공하여야 하고, 개인 묘지와 같이 소규모 지역에서 시추기를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 경험에 의한 간단한 방법으로 쪽삽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쪽삽에 발을 얹어 쪽삽에 힘을 주었을 경우, 삽이 약 5cm정도 삽입되는 곳의 흙이 비토비석이다.

요즈음은 산 사면이라도 인위적으로 흙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외부적인 형태는 비슷하나 상부에 있는 풍화암이 산사태에 의해 자연적으로 밀려 강도가 약한 붕적토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풍화암(非土非石), 붕적토, 매립층 등의 식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풍화암의 분포 양상은 비산비야의 위치에서 지표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평적으로 연속되며 수직적으로는 풍화잔류토 하부 지층이며 연암, 보통암 등의 기반암 상부에 분포하고 있다. 이 흙의 특징은 단단하므로 인접한 부위에서 뺏어 가는 나무뿌리와 벌레, 바람

(風) 및 물(水)의 침범을 막아 준다. 일반적으로 풍화암과 봉적토의 식별은 풍화암은 입자가 균질하나, 봉적토는 자갈이나 점토, 전석이 혼재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비토비석은 밀도가 강한 풍화암이며 단단하여 외부에서 물, 나무뿌리, 바람, 곤충 등의 침범을 막아주고 있다. 또한 산자락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분포하고 있다. 비토비석의 양상은 <그림 2-2>와 같다.



<그림 2-2> 비토비석(풍화암)의 단면도

3. 잃어버린 천지(天池)를 찾아

한국인이란 누구든지 민족의 성지인 백두산 정상에 둘레가 80리나 되는 천지(天池)라고 하는 못(칼데라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풍수에 사용하는 나경에도 과거에 '천지(天池)'가 있었다. 선인들은 나경의 자침이 위치하고 있는 정가 운데에 물을 담아 자침의 수평을 잡는데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나경의 '천지(天池)'이다.

풍수인이 사용하는 나경이나 지질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크리노콤포스는 나침반의 동일한 원리로 제작되었는데, 자침의 수평을 잡기 위한 천지는 동양의 나경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서양의 크리노콤포스에서만 있을뿐, 나경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청오경」에서는 “나경을 사용하여 좌향을 정함에 있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행해져야 하며, 그 오차에 의하여 길이 흉으로 바뀐다.”는 구절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나경을 이용하여 좌향을 정할

때에 손에 잡은 나경이 수평으로 되지 않으면 자침이 정(正)방향을 가리킬 수 없으므로, 결국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크리노콤포스에 있는 수평 기포인 천지를 나경에 부착한다면 자침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며 그것은 더욱 세밀한 좌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채, 후손들의 이해부족으로 천지가 소멸되었다. 일부 풍수인들은 천지에 주문을 외우면 나경이 정확하게 좌향을 잡아준다는 미신적 요소를 믿고 사용해 오다가 현대인이 미신을 타파하고 실용적으로 제작하겠다는 의도에서 천지를 누락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것은 당초에 고안해 낸 발명자의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중간에 왜곡되게 해석하여 사용되면서, 본래 동양에서 유출되어 만들어진 서양의 크리노콤포스보다 정밀성에서 뒤떨어지게 되었다.

어릴 때 무속신앙을 믿던 할머니가 들녘에 나가서 식사 전 음식의 일부분을 던지며 “고시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귀신에”라고 착각하면서 “고시내(농경시대에 불을 발견한 고시내 라는 인물)”의 어원을 모르고 수 십년을 변화된 그 어형(語形)을 간직한 채 살아온 기억이 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문화가 어려운 것은 평상시 개개인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표현들의 곡해된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제의 어원을 착각하여 그릇된 표현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있다. 그렇게 수용된 부분들은 점차로 미신화 되어 소멸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고 있다. 풍수 문화의 소산인 나경에 서양의 과학적 사고로 제작된 크리노콤포스의 기포를 결부시킬 때, 우리는 진정한 천지(天池)를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경은 나침반의 방향에 10간(戊, 己제외), 12지, 8괘(乾, 坤, 艮, 巽 적용)를 설정하여 오행에 맞추어 제작되었으며, 주로 땅의 기운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중국에서는 36층나경을 사

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9층나경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서양의 크리노콤포스는 360°을 북을 중심으로 각도별 N, E, S, W, NE, SE... 등으로 표시하여 암석의 발달 방향, 즉 주향과 경사를 측정한다. 그리고 크리노콤포스와 같은 형식으로 유사하게 분급되어 있는 것이 9층 나경에서 4층에 표기 되어져 있는 24방위에 의한 지반정침이다. 이 지반정침은 360°를 24등분하여 15°의 간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나경과 크리노콤포스 관계를 설명하면, 크리노콤포스를 사용하여 NS로 표시되는 것은 자좌오향(子坐午向)이며, N 90° W로 측정되는 것은 유좌묘향(酉坐卯向)이다. 즉, 묘지에 누운 시신의 상체부분의 방향이 좌(坐)이고, 하체 부분이 향(向)이다. 그리고 나경은 하늘, 땅, 인간의 자성을 작은 나침반에 집약하여 우주의 원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9층 나경은 원의 내부로부터 1층, 2층.....9층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중 풍수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물과 바람의 침범을 막기 위하여 1층을 황천살로, 2층을 팔요풍이라고 명명하여 제작되어 있다. 1층은 흉한 물의 기운이 침범하는 것을 측정하고, 2층은 흉한 바람의 기운을 측정하고자 제작되었다.

또한 나경은 천지인의 기운을 각각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하늘의 기운은 천반봉침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층 나경의 8층에, 땅의 기운은 지반정침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층 나경의 4층에, 인간의 기운은 인반중침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9층 나경의 6층에 각각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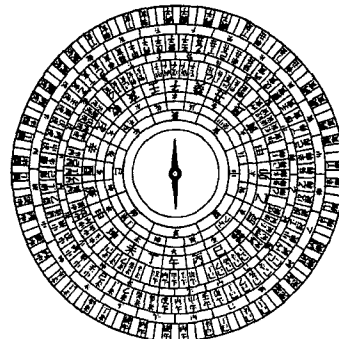
이와 같이 나경에는 우리 선조들의 천지인 삼신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하늘의 기운을 측정할 수 있는 천반봉침이 시계바늘방향으로 가장 먼저 위치하고 그 후방 7.5도 뒤에 오는 것이 지반정침, 지반정침 후방 7.5도 늦게 오는 것이 인반중침이

다. 천반봉침으로 하늘의 기운을 측정하므로 하늘에서 떨어진 물을 측정하고, 지반정침은 땅의 기운을 측정하므로 산의 기운을 측정하고, 인반중침은 인간의 기운을 측정하므로 사격(砂格:혈 주위 산의 길·흉방위를 말함)을 측정한다. 천반봉침과 지반정침은 진북과 자북의 간격이 7.5도 이므로 해석이 되나, 인반중침이 지반정침보다 7.5도 뒤진다는 것을 어떻게 설정 된지는 반평생 나침반을 들고서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과거 선조들이 감각적 기운으로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주의 생성이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긴 다음에 인간이 출현하였다는 하늘(天), 땅(地), 인간(人)의 순서에 따라 매김을 한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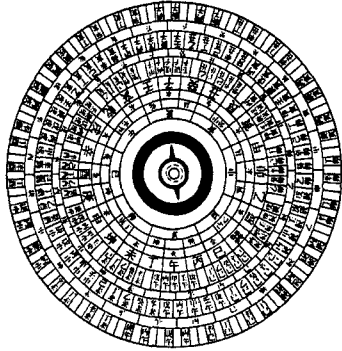
나경과 크리노콤포스의 비교는 다음 표와 같으며, 실생활에서 쓰이는 나경은 아래의 그림으로 도시화하였다.

(표 3-1) 나경과 크리노콤포스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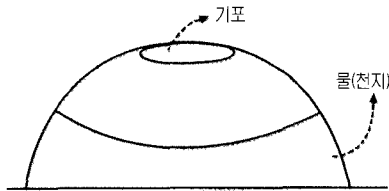
종류 구분	나 경	크리노콤포스
사용 목적	오행에 의한 땅의 기운 측정	암반의 주향과 경사측정
결과	시선에 미치는 방위측정으로 길·흉의 성질 해석	암반의 주향과 경사를 측정하여 광맥의 발달 해석
유·무형	무형의 기운 측정(문화적)	물질의 흐름 측정(문명적)
동 일 어	패철, 뜬쇠	브란톤콤포스(군대에서 사용) 크리노메타(무정화, 저가) 크리노콤포스(정화, 고가)
방위 측정	절대적 방위(1방향)와 상대적 방위(2개 이상 방향 조화) 측정	절대적 방위(1방향) 측정



(그림 3-1) 구층 나경도



〈그림 3-2〉 기포를 결부시킨 나경



〈그림 3-3〉 기포의 단면

4. 필연적 만남

음택풍수의 핵심은 혈(穴)에 있다.

혈의 위치는 산에서 내려오는 음기(強磁性)와 물인 양기(反磁性)가 서로 만나 조화를 이루는 곳이며, 혈의 흠은 비토비석으로 밀도가 강하여 오렴(五廉: 風廉, 水廉, 蟲廉, 火廉, 木廉)의 침범을 막아줄 수 있다. 그 다음 혈의 위치와 망인의 좌향(坐向)이 주변부의 방위에 적합하고 산세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형세를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음택풍수의 해석과 적용하는 방법이 학자마다 다른것은 형체가 없는 음양오행 이론으로 모호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음택풍수를 “자기(磁氣)”라는 실체와 “지질학”이라는 땅속 학문으로 해석하므로 주관적 요소가 객관적으로 바뀔수 있다. 요즘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 매장 과 화장의 차이점은 “자기”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풍수인들은 “혼백(魂魄)” 이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시신에 있는 혼은 사라지고 백은 유골에 남아 있다고 하며 화장을 할 경우에는 유골이 타서 재가 되기 때문에 무해무익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자기 이론으로 해석하면 유골에 남아있는 백은 잔류자기 성분이며 화장을 할 경우에 이러한 잔류자기 성분은 퀴리온도(450°C ~ 500°C 이상 가열하면 기존자성이 다른자성으로 변화하는 온도)이상이 되면 기존 자기 성분이 사라지고 다른 자성이 생기기 때문에 평상시 인간의 체내에 녹화된 자성이 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화장을 하면 한평생 축적된 길한 기운이나 흉한 기운이 일정한 온도 이상 가열되면 다른 기운으로 변하여 무해무익하다는 이론이다. 또한, 어릴 때 효(孝) 사상으로만 배워왔던 시묘살이(侍墓: 부모거상 중 그 무덤 옆에서 막을 짓고 3년간 사는 일)의 본래의 의미는 묘 주위에 물, 나무, 벌레 등에 의하여 묘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관찰하기위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풍수이론을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수천년 동안 동양학문으로 내려온 생활풍수를 이해하려는 노력없이 막연하게 미신이라는 선입감 때문에 우리 고유의 학문을 배척하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지하철카드, 신용카드, 자기 부상열차 등 점차적으로 첨단제품에 자기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풍수에서 묘를 쓸 때 가장 주의 할 것은 물의 기운(黃泉殺)을 살펴야 한다고 한다. 마치 지하철카드가 물에 젖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자성이 있는 시신이 물에 젖으면 흉한 일이 발생한다는 이론을 수 천년 전에 확인하여 음택풍수라는 학문을 우리네 선조들은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놓았다. 누가 풍수라는 학문에 미신이라는 돌을 던질 것인가?

(원고 접수일 2001. 1. 13)